

문학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문학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서론.

1. 문학의 정의
2. 문학의 형태

본론

문학의 기능

1. 교시적 기능
2. 쾌락적 기능
3. 종합적 기능

결론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문학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서론

문학은 언어를 예술적인 다양한 표현의 제재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인간과 사회를 진실되게 묘사하며, 사람들에게 마음적인 치유를 주는 예술 분야이다.

역사가 흐름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같이 문학 또한 다양한 종류의 문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문학은 본래 사람에서 사람으로 말을 통해 전해지는 구술문화였다. 이후 구술문화를 글로 적는 쓰기문화, 쓰기를 보편화하게 만든 인쇄문화, 더욱 나아가서 최근에는 전자문화로 발전을 거듭나게 되었다.

문학은 ‘장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형태를 구별할 수 있다. ‘장르’는 오늘날 음악이나 예술, 문학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전통적으로 문학의 장르는 크게 시, 소설, 희곡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는 운문이 있는 글로 저자의 정서와 사상을 운율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한 형태의 문학이다. 시는 형태에 따라 정형시·자유시·산문시로 나뉘고, 내용에 따라 서정시·서사시·극시로 나뉠 수 있다. 소설은 우리 인간들의 삶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작가의 상상에 의해 가상적으로 꾸며낸 문학의 한 장르이다. 대체적으로 소설은 형식에 제한이 없고 분량도 자유롭다. 희곡은 연극의 한 갈래이며 대사를 중심으로 인물의 동작이나 무대의 다양한 효과를 문자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문학은 각 타입에 따라 여러 장르로 구분이 되지만,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 표현 형식만 바꾸어준다면, 얼마든지 다른 장르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로 작성된 글을 소설로 풀어쓸 수 있고, 소설을 희곡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다. 문학이 꾸준히 발전되고 여러 장르가 탄생하게 되면서 우리 곁에 계속 머물러있는 이유는 프랑스의 철학자 뷔퐁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뷔퐁은 문학이 사회의 거울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문학은 인간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그

속에 현실 세계에 대한 패러디와 이념을 응축시켜놓기 때문이다.¹문학은 이처럼 우리들의 가치관을 형성해주고 현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예술이기에 그것이 좋은 싫든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고 우리들은 사회의 거울 같은 존재인 문학의 영향력에 대해 알 필요성이 있다.

¹ [고등학교 수행평가]'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해피컴퍼스, 본문내용,2019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23265540/>>

본론

1, 문학의 교시적 기능

문학에는 크게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교시적 기능**이 존재한다. 교시적 기능은 독자에게 줄 수 있는 도덕적·종교적 가치를 심어준다. 즉, 문학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인생의 진실을 보여줌으로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준다. 사람들의 생각은 동서양을 떠나서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한다. 동양에서는 공자라는 사람이 '시경'이라는 문학을 통해 인간이 인격 수양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문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시적 기능이 있어야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 고전 문학으로는 [홍길동전]을 예로 들 수 있다.

“소인이 평생 서러운 것은,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가 되어 부모님이 낳아 길러준 은혜가 깊사온데, 그 부친을 부친이라 못하고 그 형을 형이라고 못 하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니까?”

- 허균, 유재론 일부

위의 글은 [홍길동전]의 배경 사상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유재론'의 내용을 나타낸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것으로 하늘이 인재를 낼 때는 신분이나 지역에 따위에 상관없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나라가 좁고 인구가 적어서 인재가 드물게 나지만,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제외를 하고,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이유로 제외를 하고, 서자라는 이유로 제외를 하다 보니 정작 쓸 인재가 없어져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가 자처한다. 하나라고 더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려고 노력하고 빠진 인재가 없는지 걱정해도 부족할 판에 당시 조선 사회는 인재를 찾는 길을 막고서 '인재가 없다'고 탄식만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다.

서자라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와 제대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홍길동의 울분은 위의 유재론 내용과 연결되는 면이 있다. 나라에 등용되어 일을 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된 홍길동은 활빈당이라는 무리를 만들어 나라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존재감을 사회에 드러낸다. 임금은 홍길동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음을 알고 마지못해 홍길동의 소원을

들어준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홍길동은 고위 관리 자리에 오르자마자 사직을 하고, 자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평화로운 나라였던 울도국을 침공해서 왕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홍길동전]은 독자들에게 출신에 상관없이 널리 인재를 등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능력을 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여 미래를 도보하지 않은 조선 사회의 무능함을 지적한다. 이는 공직 후보자 한 명도 제대로 발탁하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는 오늘날까지도 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를 제시한다.

2. 쾌락적 기능

다음으로는 **쾌락적 기능**이 존재한다. 쾌락적 기능은 사람들에게 고차원적인 정신적, 미적 쾌감을 주는 것이다. 문학은 사람들에게 문학만의 즐거움을 주고, 감정을 정화시키는데에 도움을 준다. 문학은 상상력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현실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이상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란 책에서 ‘카타르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카타르시스’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불안, 공포, 슬픔, 한 등이 눈물로 동반한 감동에 의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자극과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문학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아까 언급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란 저급한 쾌락이 아닌 정신적인 자극을 주는 고차원적인 것이다². 예를 들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음란하거나 자극적인 글 또는 영상들은 단순 쾌락만을 주는 문학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학이란 심미적 쾌락으로 사람들에게 미적인 쾌감과 즐거움을 통해 문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면을 아름답게 풍부하게 채울 수 있게 해준다.

‘이후 길동이 스스로 이름 부르기를 활빈당이라 하여 조선 팔도를 다니며 각 읍 수령에게 의롭지 못한 재물이 있으면 탈취하고, 몹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자가 있으면 구제하며, 백성은 해치지 아니하고, 나라에 속한 재물은 추호도 범하지 아니하니, 이윽고 도적들도 길동의 뜻에 복종하게 되었다.’

² 은목서, 문학의 기능, 쾌락적 기능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ueun6186&logNo=70010492661&proxyReferer=https://www.google.com/>)

우리나라 대표 고전 문학 [홍길동전]은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 자체는 비현실적이고 홍길동은 비와 바람을 부르거나 분신을 만들거나 구름을 일으키는 도술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홍길동전]은 비현실적인 방법. 즉, 도술을 이용하여 독자들에게 쾌락을 선사해주고 있다. 홍길동은 도술로 홍 판서의 첩인 초란이 길동의 재주가 출중하고 홍 판서가 갈등을 아끼는 것을 시기하여 길동을 죽이려는 암살 시도를 극복하고 집을 떠난 뒤 도적들의 두목이 되어서 활빈당을 만들고 도술로 관리들의 비리를 혼내줌으로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의 극복하기 힘든 고난들을 헤쳐나가는 히어로를 연상시키게 하고 도술로 하여금 소설 [홍길동전]에 쾌락적 기능을 존재하게끔 하였다.

3. 종합적 기능

마지막으로 문학에는 교시적 기능과 쾌락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기능**이 존재한다. 종합적 기능은 교훈과 쾌락이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말한다. 문학작품을 읽는 이유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읽기도 교훈이나 다양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읽기도 한다. 이처럼 문학은 사람들에게 고차원적인 정신적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인생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홍길동전]에서 이러한 종합적 기능을 나타내는 사건이 존재한다. 바로 이상적인 나라 율도국이다.

‘이 때 율도국이란 나라가 있었으니, 그 넓이는 수천리요. 사방이 막혀 있어 과연 견고하고 풍요로운 나라였다. 길동이 매양 이곳에 뜻을 두어 왕위를 빼앗고자 했는데, 이제 삼년상을 마치고 기운이 활발하여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의병장 홍길동이 글월을 율도왕에게 진하노라.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이러므로 탕왕이 겉을 정벌하시고, 무왕이 주를 정벌하신 것은 하늘의 이치로 자연히

된 일이라. 내 일찍이 군사를 일으켜 울도국을 치매, 먼저 철봉성을 항복받고 물밑듯이 밀고 들어가니
지나는 곳마다 투항하지 않은 자가 없었도다. 이제 왕이 싸우고자 하면 싸우고, 그렇지 아니하면 일찍
항복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 허균, 홍길동전 일부

홍길동은 뛰어난 전략과 수완, 그리고 도술이라는 힘을 이용하여 울도국이라는 곳의 왕이 되기
위해 싸운다. 허나 그는 항복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으며 싸움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홍길동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서 쾌락을 느끼게 해준다.

‘길동이 성안으로 들어가 백성을 위로하고 소와 양을 잡아 여러 장수와 군졸에게 베풀었다.
길동이 왕위에 오르니, 때는 을축년 정월 28일이었다……왕이 즉위한 지 삼 년에 온 나라가 태평하여
사방에 일이 없고 국태민안하니 왕의 은덕이 탕왕에 비길 정도였다…… 세월이 흘러 왕이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 또한 총명하여 재주와 덕행이 비할 데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후세에 그 재주와 충효를
알게 함이라. 자손들이 대를 이어 태평성대를 누리더라’

- 허균, 홍길동전 일부

홍길동이 울도국의 왕이 된 이후, 자결한 왕과 왕비들을 추모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홍길동은 그들을 위로하고 울도국을 전보다 평화로운 나라로 만듦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나라를 성장시킨다. [홍길동전]은 울도국이라는 이상적인 나라에 비해 우리들은 길동이 떠나올 수 밖에
없었던 조선 사회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다. 조선 사회는 도적이 들끓을 수 밖에 없고, 자신의 탐욕을
제어할 수 없는 사회를 비판한다. 그렇다면 왜 도적이 생기게 되었을까? 바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귀족들은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토지 제도에 의해 귀족들은 토지를 차지하고
백성을 수탈하여 살기 힘들어졌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의 심상은 거칠어졌고 인간의 심상은 외부적인
물질과 환경에 지배되기 마련이다. 결국 조선 사회는 도적이 들끓게 되고 나라에 크고작은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울도국은 올바른 정치와 제도, 그로 인해 사람들의 심상이 순화된 이상 사회를
나타내어서 당시 조선 사회의 무능력함과 사회의 모순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나라 혹은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결론

1. 긍정적인 영향

사람은 절대로 물질적인 것에만 의존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은 반드시 정신적인 삶을 살 필요성이 있다. 물질적인 풍요만큼 혹은 그보다 더 정신적인 발전과 성숙이 있어야 비로서 사람은 사람답게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사람의 정신적인 삶은 세상 혹은 삶을 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더욱 고차원적인 곳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문제들은 타인의 입장이나 처지, 감정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이 있다. 빈부 격차로 인한 갈등을 예로 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 가족, 친구, 연인 등 사람들 사이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는 갈등도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야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문학은 독자들에게 작품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등장인물의 삶과 등장인물의 배경이 되는 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학은 상상력과 감수성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타인의 삶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타인의 기쁨과 슬픔, 고통과 노여움, 억울함 등의 정서를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성을 길러주어 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조화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간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의 치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 있어서 문학은 작품의 감상을 통해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삶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고, 자신만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글을 읽다보면 자신이 마치 그 문학의 등장인물이 되어서 사건을 풀어나가고 삶을 살아가거나 음식의 맛을 상상하여서 그 맛을 떠올리는 경험을 한번씩은 해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형상을 토대로 실제로 호주의 심리학자인 앨런 리처드슨은 어느 농구팀 선수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선수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는데 A그룹의 농구 선수들에게는 실제로 농구공을 가지고 연습하게 하였고 B그룹의 농구 선수들은 연습을 전혀시키지 않고 C그룹의 농구 선수들은 농구공을 만지지 않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세 그룹 중 B그룹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나, A그룹과 C그룹은 비슷한 수준의 실력 향상을 이루었다.³ 이처럼 문학은 우리들은 뇌의 기능을 다방면으로 발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현재 우리 사회는 대부분 고령화 시대로 접하고 있는데 문학을 통해 글을 많이 접하게 되면 언어의 발달, 치매예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2. 부정적인 영향

반면, 저속하고 저급한 문학은 우리의 정서를 황폐화시키고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문학은 연령, 외모, 가족구성, 성에 대한 인식 등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저급한 문학은 음란물에 가까운 선정적이고 통속적인 작품들을 예술이란 이름 미명 아래에서 잘못된 정서를 퍼트리게 하고 이성적으로 절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은 왜곡된 성 지식과 인격을 갖게 된다. 이처럼 비뚤어지고 잘못된 글들이 각종 사회문제와 성적 타락을 불러 오게 된다. 또한 글을 지나치게 중요시 여기면 자칫 문폐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에 일어났던 무신의 난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사회는 문이라는 분야만 지나치게 숭상하고 무를 무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있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차별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무신의 난을 일어나게 되었다. 그 후, 나라에는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문학을 창작할 때는 진실성이 있어야하고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 감동을 느끼게끔 이끌어야한다. 그러나 만약 문학이 진실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짓된 이야기로 인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문학을 접하는 독자들에게는 잘못된 가치관 또는 정체성을 설립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문학을 창작하고 접할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 거짓과 위선의 옷을 입고 다닌다. 문학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옷을 벗겨내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가치있는 일이며, 힘들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만적이고 이기적인 본능을 길들여내는 것이 문학을 읽는 목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인간에게 신뢰라는 가치를 심어주고 타인을 공감,사랑하는 법을 알려준다.

³ SON, 이미지 트레이닝-훈련된 상상력:네이버 블로그, 2015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edu2050&logNo=220530205119>)